



기도영상

복음통일을 위한 기도 자료 Vol. 1.

정세 이야기

최근 북한은 ‘통일 폐기’를 발표했습니다. 2023년 12월 말, 김정은은 조선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북남 관계는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 관계”라고 규정하고 “남조선 영토 평정 위한 대사변 준비”를 선언했습니다. 이후 대남기구들을 정리·개편하고 평양에 있던 통일 기념물도 철거했습니다. 북한 애국가에서 통일을 의미하는 ‘삼천리’는 ‘이 세상’으로 대체했습니다. 이제 민족 역사에서 ‘통일’, ‘화해’, ‘동족’이라는 개념 자체를 완전히 제거한다고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2023년 국민 통일의식 조사에 따르면, 통일에 무관심하고 회피하는 비율이 56%를 넘어섰습니다.

북한은 ‘통일 폐기’로 가고 남한은 ‘통일 회피’로 빠르게 갑니다. 이 방향이 정말 바른 방향일까요? 통일이 없이는 북한의 2천 6백만 동포가 복음을 자유롭게 들을 수 있는 날이 점점 멀어져갑니다. 통일이 없이는 북녘 동포들이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점점 멀어져갑니다. 통일이 되어야 북녘에 고향을 두고 월남한 이산가족과 탈북민이 그립고 그리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통일이 되고 복음의 빛이 북녘땅에 비쳐야 북한의 2천 6백만 동포에게 참된 구원이 임합니다. 복음의 빛만이 북녘땅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기도제목

무엇보다 우리에게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우리가 북녘 동포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3만 4천 탈북민을 부정적으로만 바라본 것을 회개합니다. 그들이 정착하며 겪는 어려움에 무관심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행 2:38)

주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북한 동포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 곁에 보내주신 탈북민이 겪는 어려움에 무관심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북한 동포와 탈북민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고 편견과 적대감을 버리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북한 동포에게 회개와 구원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동서남북에 흩어진 탈북민들을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그들이 고통 가운데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 한반도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통일선교기관의 특별기도 제목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학을 공부한 탈북민을 통해 한국에 50여 개의 탈북민교회가 개척되었습니다. 그리고 탈북민 목회자와 신학생이 모여 북한기독교총연합회라는 기관을 설립했습니다. 탈북민교회의 성도 대부분은 탈북민으로서, 탈북민교회는 한국 사회 곳곳에서 살아가는 탈북민의 바로 곁에 머물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탈북민교회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지만, 어두운 북녘땅을 향하여 빛을 비추는 소중한 등대입니다. 탈북민교회와 한국·한인교회가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어 동행하고 동역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 나눔

본문: 사도행전 2장 38절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베드로는 오순절에 말씀을 선포합니다. 청중은 그의 설교를 듣고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마음에 찔림을 받습니다. 이에 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물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요구한 첫 번째는 바로 ‘회개’였습니다.

‘회개’란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즉 죄와 불신에서 떠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믿고 성결로 나아가는 마음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사도행전에서 복음이 확산하는 데 가장 중요한 기초는 회개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성령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동안 우리는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교회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했고, 국가와 세계선교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북한 동포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게을리하였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또한 대한민국에 와서 어려움을 겪는 탈북민의 고통에 대해 들었지만, 그들을 위해 마음을 담아 기도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보내신 우리의 동포이자 형제자매임을 다시 고백합니다.

베드로는 마음의 찔림을 받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받으라고 말합니다. 세례는 죄 사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신앙고백적 의식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은 삶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남과 북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죄 사함을 받아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는 복음통일 공동체를 오늘 꿈꿉니다. 그 언젠가 북녘 동포와 한 식탁에 둘러앉아 떡과 포도주를 나누며 주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자유롭게 예배하게 될 것을 꿈꿉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자리에 모여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서로의 오랜 눈물을 닦아줄 그 모습을 꿈꿉니다. 그때가 오면, 우리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날이 오도록 당신을 기억했고 당신을 위해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노라고.

베드로는 그들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라고 외칩니다. ‘회개’와 ‘성령’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합니다(행 8:17).

우리는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 시간에 북녘 동포를 향한 기도가 일어나고, 탈북민의 고통에 무관심했던 것에 회개가 일어나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북녘땅에 사는 동포들과 중국, 대한민국 등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사는 동포들 가운데 성령님께서 강림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회개에는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설교한 베드로도 헛날 로마에 가서 사역할 때 회개하는 사건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쿼바디스> 작품에 보면, 박해 시대에 로마를 도망쳐 떠나는 베드로가 도상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가시는 방향은 베드로가 떠나온 로마였습니다. 베드로가 가는 방향과 주님이 가시는 방향이 정반대였습니다. 베드로는 주님께 물습니다. “쿼바디스 도미네(Quo Vadis Domine)?”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로마로 간다. 네가 떠나온 로마로 가서 십자가를 짚어지고 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 간다.”

이때 베드로는 부활 후에 갈릴리로 찾아오신 주님과 만나 대화를 나눈 사건이 기억났을 것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요 21:15~17). 이 질문에 베드로는 세 번이나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치라”고 세 번 당부하셨습니다. 아마 베드로는 이 당부의 말씀이 기억났을 것입니다. 이에 그는 로마에서 아파하고 고통받는 이들에게로 가시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 가던 길에서 돌아섭니다. 베드로의 회개입니다. 베드로가 가는 방향이 주님이 가시는 방향과 같아졌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향한 곳으로 베드로의 마음이 맞춰졌습니다. 베드로는 로마로 돌아가 순교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설교한 베드로는 회개를 통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주님의 마음이 있는 이들을 향해 로마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고통받는 그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줍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서 가장 박해지수가 높은 북녘땅에서 2천 6백만 어린 양들이 아파합니다. 주님의 마음은 당신의 어린 양들이 아파하는 곳을 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아픔을 느끼지 못했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의 마음이 향해 있는, 북녘땅의 고통 받는 동포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합시다. 또한 그 어두운 북녘땅을 탈출해서 자유 대한민국에 정착해 살아가는 3만 4천 명의 탈북민을 부정적인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기도합시다. 나아가 탈북민들이 예수를 전하기 위해 개척하여 세운 50여 개의 탈북민 교회를 기억합시다. 이 교회들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 교회들을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신학적 관점

우리는 ‘통일 폐기’와 ‘통일 회피’에 대해서 왜 회개해야 할까요? 서로를 배제(exclusion)하는 짓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나누는 식탁 교제(막 2:15-17)를 통해 흔히 종교에서 덕으로 간주하는 배제의 행위가 죄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유대 사회에서 죄인은 종교적으로 타락한 사람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추방된 사람,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까지 포함했습니다. 자신을 ‘의로운 사람’으로 여기는 사람은 ‘세리와 죄인들’로부터 분리되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부정하기에 그들의 존재가 다른 사람까지도 부정하게 만든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부정에 대한 이해를 반대하십니다. ‘세리와 죄인들’과 식탁 공동체를 만드심으로 그들을 공동체 안으로 재통합(reintegration)하시고, 그들을 부정한 존재로 만든 사람들과 제도가 오히려 ‘죄로 물들었음’(sinfulness)을 보여주십니다.

남과 북에 있는 사람 모두는 한 가족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겪었습니다. 정전된 지 벌써 70년이 넘어갑니다. 우리는 전쟁과 분단을 지나오면서 서로 다른 교육과 체제 가운데 이질적인 문화와 정체성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남과 북은 여전히 한 가족입니다. 서로를 주적으로 삼고 있고 서로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한 가족입니다. 서로 다른 체제와 이념은 서로를 부정한 타자로 고착시키지만, 우리는 여전히 다시 만나고 재통합되어야 하는 가족입니다.

주님께서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오랜 억압에서 해방하시고 가족에게 돌려보내십니다. 이를 통해 그를 가족공동체 안으로 재통합(막 5:1-20)하십니다. 더러운 귀신은 사람을 공동체와 단절시키고 서로 반목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주님은 깨어진 관계를 치유하시고 이어주십니다. 이러한 주님의 모습에서 ‘통일 폐기’와 ‘통일 회피’는 주님이 가시는 방향과 반대 방향임을 알 수 있습니다. 남과 북 모두 유턴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부정하게 인식하는 잘못된 관점을 폐기하십니다(행 10:15). ‘부정하다’는 꼬리표를 떼시고 새로운 이름을 붙여 주십니다(re-naming). 생명을 창조하시고 지탱하십니다. 나아가 정결하게 만들어 주십니다(re-creating). 그 결과 그 존재를 공동체 안으로 재통합시키십니다. 우리는 남북 사람들이 서로를 부정적으로 보는 인식의 꼬리표를 떼어내야 합니다.

21세기 최고의 화해 신학자로 평가받는 미로슬라브 볼프(Miroslav Volf)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배제의 실행’과 ‘배제의 언어’는 미움으로부터 무관심에 이르기까지 타자에 대한 다양한 정서적 반응을 동반한다”(볼프, 2012, 117). 이어서 그는 아르네 베를센(Arne Johan Vetlesen)의 말을 인용합니다. “무관심이 초래하는 폐해는 느끼고 실천하고 실행한 증오가 초래하는 폐해보다 훨씬 더 크다”(볼프, 2012, 117).

북과 남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서로를 증오하거나, 또는 무관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관심이 증오보다 더 심각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5천만 대한민국 국민 중에 탈북민은 3만 4천 명에 불과하며, 그나마 언론에서나 가끔 접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무관심하기가 쉽습니다. 누군가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도 문제지만, 고통받는 이들에 대한 무관심은 더욱 심각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통일 폐기’와 ‘통일 회피’는 서로를 배제(exclusion)하는 죄이며, 우리는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먼저 회개하며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우리 민족을 새롭게 깨우고 회복해가기를 소망합니다.

* 본 글은 미로슬라브 볼프(Miroslav Volf)의 저서 『배제와 포용』(박세혁 역, 한국기독학생회출판부, 2012) 중에 “배제의 구조와 원동력”(pp. 109-120)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글 전체에서 직접 인용 부분만 내주를 넣고 각 문장과 단어의 출처에 대한 각주를 생략한 것은 독자가 읽기 편하게 하기 위함입니다.